

브리지스톤, 2019 년 상반기 글로벌 경영실적 공개

- 그룹 전체 순매출 1조 7천 446억 엔, 영업이익 1천 584억 엔 기록
- 타이어 사업부문 순매출 1조 4천 560억 엔, 비타이어 다각화 사업부문 매출 2천 968억 엔

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이 2019 년 상반기(2019 년 1 월 1 일- 6 월 30 일) 그룹 전체 경영실적을 공개했다. 브리지스톤 그룹의 2019 년 상반기 순매출은 한화로 20 조 105 억 원, 영업이익은 1 조 8 천 168 억원을 기록했다(환율 100 엔=1,147 원 기준 계산).

브리지스톤의 2019 년 상반기 순매출은 1 조 7 천 446 억 엔(20 조 105 억 원을 기록했다. 전년 동기 대비 2% 감소한 수치다(엔, 달러, 유로 환산기준: 1 달러=110 엔, 1 유로=124 엔).

그룹의 전체 순매출에서 타이어 사업부문은 1 조 4 천 560 억 엔(16 조 7 천 3 억 원), 비타이어 다각화 사업부문은 2 천 968 억 엔 (3 조 4 천 42 억 원)을 차지했다. 타이어 사업부문이 브리지스톤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.4%다.

전체 영업이익은 1 천 584 억 엔(1 조 8 천 168 억 원)을 달성했다. 전년(1 천 994 억 엔) 동기 대비 21% 감소했다. 타이어 사업부문은 1 천 585 억 엔(1 조 8 천 179 억 원), 비타이어 다각화 사업부문은 1 억 엔(11 억 원)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. 타이어 사업부문은 전년 대비 17% 감소했다.

지역별로 볼 때 전체 순매출 및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미주 지역으로, 각각 8 천 555 억 엔 (9 조 8 천 125 억 원)과 775 억 엔(8 천 889 억 원)을 기록했다. 일본을 제외한 중국 및 아시아-태평양 지역에서는 순매출 3 천 4 억 엔 (3 조 4 천 937 억 원), 영업이익 236 억 엔 (2 천 706 억 원)을 달성했다.

브리지스톤은 총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의 요인으로 천연고무값의 상승, 일부 지역의 회계 규정 변경, 글로벌 판매량 감소를 꼽았다. 반면 18 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타이어 및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의 판매량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
* ¥ 100 = ₩1,147 기준
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액수는 변동 가능

순매출	타이어	1 조 4 천 560 억 엔 (16 조 7 천 3 억 원)	1 조 7 천 446 억 엔 (20 조 105 억 원)
	다각화 사업	2 천 968 억 엔 (3 조 4 천 42 억 원)	
영업이익	타이어	1 천 585 억 엔 (1 조 8 천 179 억 원)	1 천 584 억 엔 (1 조 8 천 168 억 원)
	다각화 사업	-1 억 엔 (-11 억 원)	
경상이익	1 천 544 억 엔 (1 조 7 천 709 억 원)		

###